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1면	춘천서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위훈 기려	1
강원도민일보	23면	"강뉴부대 영웅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2
江原日報	04면	“최규하 前 대통령 역사적 재평가 이뤄져야”	3
춘천MBC	온라인	신 교육감 "감사원 감사 결과 지켜볼 것"	4
江原日報	21면	박윤미 도의원 원주 만종역 일일명예역장 위촉	4
강원도민일보	11면	박윤미 원주도의원 일일 명예역장	4
노컷뉴스	온라인	박윤미 강원도의회의원 "오늘은 제가 원주 만종역장"	5
연말뉴스		[의회소식] 강원도의회, 강릉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사례 ...	6
강원신문	온라인	강원자치도의회,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현지시...	7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현지 시찰	8
江原日報	03면	“산림사업 안전불감증 심각” 강정호 도의원 대책 촉구	8
춘천MBC	온라인	강원도 산림 사업장, 매년 200건 사고 발생	9
연말뉴스		강원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연평균 200건...4년간 20명 숨...	10
G1방송	온라인	도내 산림사업장 안전 불감..연평균 200여 건	11
강원도민일보	03면	민주 도당 총선거기획단 첫 회의... 단장에 김기석 교수	12
KBS 춘천	온라인	산림엑스포 폐막 한 달...‘사후 활용’ 관심	13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심영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14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심영곤(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	14
江原日報	02면	“강원특별법 산림 특례범위 국립공원 포함하라”	15
江原日報	03면	오늘부터 道·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돌입	15
江原日報	04면	신 교육감 “전자철판 사업 시끄럽게 돼 유감”	16
江原日報	04면	장애인 주차구역 16대뿐 ... 휠체어 타고 정류장 이동도 어...	16
강원도민일보	01면	역대 최대 누적수출액 불구 강원 무역수지 적자	17
江原日報	10면	춘천 교육발전특구 유치 도전장	17
강원도민일보	04면	추웠다 풀렸다 오락가락 11월...최저·최고기온차 31.7도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속초 북방항로, 국제도시 출발점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부응해야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외국인 인력 채용, 산업현장 특성 반영돼야 한다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50년 규제 지역경제 침체, ‘소양댐 법’ 정비해야	22

江原日報

2023 11 22 ()

21

춘천시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위훈 기려

한국전참전기념관서 열려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의 위훈을 기리기 위한 '2023 호명추모 CALL HERO 에티오피아 참전영웅 보훈의 날 기념식'이 21일 춘천 에티오피아 한국전참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황학수 보국영웅 CALL HERO 중앙회 총재, 데세 달케 두카모 에티오피아 대사, 고광만 기념식 조직위원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자치도의장, 신경호 강원자치도교육감, 노용호 국회의원,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 이희정 강원서부



◇에티오피아 참전영웅 보훈의 날 기념식이 21일 춘천 에티오피아한국전 참전기념관 앞에서 황학수 CALL HERO 중앙회 총재, 데세 달케 두카모 에티오피아 대사,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보훈지청장, 이돈섭 대한적십자사 강원자치도지사 회장 등과 보훈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보람 디자인씽킹 뮤지엄 관장이 진행을 맡았다.

1부 행사는 드론국기계양, 분향·헌화, 추모사와 추모시

낭독, CALL HERO 호명봉헌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 김병태 대한민국 헌정회공익재단이사장이 기부한 장학금이 에티오피아 장학생 6명에게 전달됐다. 김준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1 22 ()

23



에티오피아 참전영웅 보훈의 날 기념식이 21일 에티오피아 한국참전기념관 앞 광장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도 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황학수 보국영웅 CALLHERO 중앙회 총재, 데세 달케 두카모 에티오피아 대사, 참전용사 후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강뉴부대 영웅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보훈의 날
추천 기념식서 양국 우정 도모
헌화·분향·후손 장학금 전달

보국영웅 CALL HERO 중앙회(총재 황학수)가 주최한 2023 호명추모 CALLHERO에티오피아참전영웅보훈의 날 기념식이 21일 오후 1시 춘천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노용호 국회의원, 황학수 보국영웅 CALLHERO 중앙회 총재, 권혁열 도의회 의장, 백창석 춘천시부시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장, 데세 달

케두카모 에티오피아 대사,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영웅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통해 6.25전쟁 당시 전사한 122명의 에티오피아강뉴부대원들에 대한 분향 및 헌화가 진행됐고, 김병태 전 국회의원이 에티오피아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황학수 보국영웅 CALLHERO 중앙회 총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당시 에티오피아 용사들이 흘린 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전국의 지방정부와 자치단체가 참전일 당일 깃발 게양대에 에티오피아 국기를 게양하고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전달 사업에 참여하자”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에티오피아 영웅들 덕분에 자유와 풍요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며 장학사업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경호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오늘을 숨쉬고 내일을 꿈꾸는 삶의 터전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의 공적을 기리고 오늘에 새겨 내일로 잇고자 다짐한다”고 말했다.

데세 달케 두카모 에티오피아 대사는 “이 행사는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 뿐만 아니라 양국간 피어난 영원한 우정을 상징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간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유대가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호 kimjho@kado.net



◇최규하 대통령 기념 청렴상 시상식 및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특별강연이 21일 원주문화원에서 열려 특강을 마친 박진오 강원일보사와 박순조 (재)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종한 전 강원도지사, 김기홍 강원자치도의회 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주=박승선기자

“최규하 前 대통령 역사적 재평가 이뤄져야”

21일 원주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열린 최규하 대통령 기념 청렴상 시상식 및 특별강연회 강사로 나선 강원일보 박진오 사장은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의 청렴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선양사업과 강원도 정신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오 사장은 ‘언론인이 본 최규하 대통령’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근·현대사에서 강원도가 낳은 인물을 꼽으라면 최규하 전 대통령과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생각난다. 이들이 생전 애용했던 신발은 다 낡고, 밑창이 닳아서 덧대 사용할 만큼 얼마나 검소하게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갔는

원주서 청렴상 시상식 열려
본보 박진오 사장 특별강연
“국제 무대에서 한국 위상 높여”

지 새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대통령은 근현대사에 가장 격랑기였던 1970~80년대를 잘 위기관리함으로 한국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 그는 애국심을 갖고,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고향 사랑을 보여줬으며, 국제 무대에서 한국 위상을 높이는 데 열정을 쏟았지만, 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원주 시민들과 강원도민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순조 (재)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함종한 명예이사장(전 강원도지사), 김기홍 강원자치도의회 부의장, 박길선 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권오광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이을범 원주지방환경청장, 이상현 원주문화원장, 원행 스님(오대산 월정사 선덕), 유종우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강원자치도교육청 감사청렴총괄담당 김성호 서기관과 원주시청 감사관실 김진영 주무관 등 2명이 청렴상을 받았다.

김인규기자 kimingyu1220@

2023 11 21 ()

춘천MBC

신 교육감 "감사원 감사 결과 지켜볼 것"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철판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교육감은

감사원이 두 번 도교육청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가져간 만큼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자 철판 관련 내년 예산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결에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규

ljkbback@chmbc.co.kr

2023 11 22 ()

江原日報

21



박윤미 도의원 원주 만종역 일일명예역장 위촉 박윤미(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21일 원주 만종역(역장:김세환) 일일명예역장으로 위촉됐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22 ()

11



박윤미 원주도의원 일일 명예역장 박 윤 미
원주도의원은 21일 코레일 강원본부만종역 일
일 명예역장으로 위촉, 승객 안내, 승차권 자동
발매 이용 안내, 직원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노컷뉴스

2023 11 21 ()

박윤미 강원도의회의원 "오늘은 제가 원주 만종역장"

핵심요약

21일 원주 만종역 일일역장 활동
"원주 관문 만종역, 최선 다하는 직원분들께 감사"



원주지역구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21일 원주 만종역 일일 명예역장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21일 원주시 만종역 일일명예역장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원주 지역구 3선의 박 의원은 이날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종역에서 승객 안내, 역사 시설물 방제활동, 직원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원주의 관문역인 만종역을 찾는 철도이용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라며 승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애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2023 11 21 ()



[의회소식] 강원도의회, 강릉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사례 견학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현지 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 연구회인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는 21일 강릉지역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사례 파악을 위해 강릉문화원과 강릉화폐전시관, 강릉 단오제전수교육관을 찾았다.

연구회는 강릉문화원에서는 지역 문화콘텐츠 연구사업과 기록화 사례를 살피고, 화폐전시관에서는 세계 최초 모자(母子) 화폐 인물을 활용한 전시 사례를 살폈다.

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는 단오제 전승·관리 사례를 견학했다.

김정수 연구회장은 "수집한 연구자료를 앞으로 연구회 활동에 최대한 반영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문화유산 정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미 강원도의원, 원주 만종역 일일 명예 역장 위촉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윤미 강원도의원, 원주 만종역 일일 명예 역장 위촉

(춘천=연합뉴스) 박윤미 강원도의회원이 21일 원주시 만종역 일일 명예 역장으로 위촉됐다

박 의원은 만종역에서 승객 안내와 역사 시설물 방제 활동, 직원과 간담회 등을 했다.

박 의원은 "철도이용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라며, 승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3 11 21 ()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강원자치도의회,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현지시찰

정찬범 기자

강릉지역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사례 현지시찰
강릉문화원, 강릉화폐전시관, 강릉단오제교육전수관 견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는 지난 21일, 진행된 현지시찰은 연구회 소속 의원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인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회장 김정수, 국힘)”는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강릉지역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사례 현지시찰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는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 중 하나로, 강원도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강원도 유·무형 문화재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개발, 기록하는 기반사업을 연구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지난 21일, 진행된 현지시찰은 연구회 소속 의원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강릉문화원 △강릉화폐전시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을 견학했다.

강릉문화원에서는 지역 문화콘텐츠 연구사업 및 기록화 사례를, 지난 6일 개관한 △강릉화폐전시관에서는 지역 문화유산 콘텐츠인 세계 최초 모자(母子) 화폐 인물을 활용한 전시 사례를,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강릉단오제 전승 및 관리 사례를 살펴보았다.

김정수 회장은 “이번 현지시찰을 통해 강원 지역의 지역들이 보유한 문화유산 콘텐츠의 선별적인 발굴 및 활용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며, “수집한 연구자료는 향후 연구회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문화유산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찬범 기자 gwnews@hanmail.net

17

江原日報

2023 11 22 ()

03

“산림사업 안전불감증 심각”

강정호 도의원 대책 촉구

강원도민일보

2023 11 22 ()

22



도의회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현지 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문화유산콘텐츠발굴연구회(회장 김정수)가 21일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등에 방문해 단오제 전승 사례 등 강릉지역 문화유산 현장학습에 나섰다.

사진제공=도의회

강정호(국민의힘·속초·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도내 산림사업장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산림사업장 안전사고는 △2020년 225건 △2021년 199건 △2022년 204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림사업장 내 사망 사고는 △2020년 5건 △2021년 4건 △2022년 6건으로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5건 발생했다. 강정호 의원은 올해 강원지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26건 중 임업 사망 사고는 전체의 19%로, 건설업(70%) 다음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내 임업 사망사고 대부분 안전수칙 위반이나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춘천MBC

2023 11 21 ()

강원도 산림 사업장, 매년 200건 사고 발생

강원도 내 산림 사업장에서

한 해 평균 200건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정호 도의원이 강원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산림 사업장

안전 사고는 2020년 225건, 2021년 199건,

지난해 204건 발생했습니다.

나무에 깔리거나 베임·찔림 사고가

가장 많았고, 충돌하거나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올해 강원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26건 가운데

임업 사망 사고는 전체의 19%로

70%인 건설업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강원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연평균 200건...4년간 20명 숨져

강정호 도의원 "원인은 안전불감증...안전관리 강화 필요"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지역 산림사업장에서 최근 4년간 사망사고 20건이 발생하는 등 연평균 200건 안팎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산림 사고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속초1)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산림사업장 안전사고는 2020년 225건, 2021년 199건, 2022년 204건, 올해 10월 말까지 6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사고는 2020년 5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올해 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은 나무 전도(192건), 절단.베임.찢림(191건), 낙하물 충격(113건), 기타(92건)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 사업장 등 민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조림이나 숲 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공공에서 발생한 사고도 2020년 30건, 2021년 49건, 2022년 69건, 올해 5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10월 초까지 도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26건 중 임업 사망사고 비율은 19%로, 건설업(70%) 다음으로 높았다.

강정호 의원은 "사망사고 대부분이 안전 수칙 위반이나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벌목 현장에서는 반드시 대피 장소를 정해두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G1방송

2023 11 21 ()

도내 산림사업장 안전 불감..연평균 200여 건

이은수 기자 [soo@g1tv.co.kr]



도내 산림사업장에서 지난 3년간 평균 2백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정호 도의원이 강원자치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건 수는 지난 2020년 225건, 2021년 199건, 지난해 2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유형은 나무 전도 192건, 절단·베임·쥘림 191건, 낙하물 충격 113건 등으로, 이 중 사망 사고도 15건에 달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22 ()

03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1일 춘천 강원도당사에서 총선거기획단 1차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민주당 강원도당 제공

민주 도당 총선거기획단 첫 회의... 단장에 김기석 교수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총선거기획단이 21일 1차회의를 열고 기획·조직·정책 분과별 기획단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김우영)은 이날 춘천 도당사에서 총선거기획단 1차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총선거기획단은 김기석 강원대 교수가 단장을 맡았다. 기획단은 이날 기획분과장에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조직분과장에 주대하 강원도당 수석부위원장, 정책분과장에 이기원 강원해파랑연구소장을 임명했다. 또, 한금석·전

상규 자문위원과 각 분과위원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될 선거만큼 민주당

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석 단장은 “이번 총선은 비단 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총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이설화

2023 11 21 ()



산림엑스포 폐막 한 달... '사후 활용' 관심

앵커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폐막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이제 관심은 엑스포 행사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건데요.

산림 레포츠 최적지라는 용역 결과가 나온 가운데, 산림과 관련된 기관 이전 등 지역사회 바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10월) 막을 내린 강원세계산림엑스포입니다.

산림을 주제로 한 지구촌 첫 엑스포를 보기 위해 145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폐막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은 엑스포장입니다.

20만여 제곱미터에 들어섰던 전시관 등 각종 시설물이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높이 45미터 규모의 랜드마크, '솔방울 전망대' 등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 엑스포 행사장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이른바 활용 방안이 관심입니다.

일단 강원도의 사후 활용 기본 용역에서는 해당 부지가 산림 레포츠 최적지로 평가됐습니다.

둘레길을 잇는 숲속 야영장과 숲 위를 걷는 공중 산책로, 일명 '트리 탐 로드' 등 산림과 숲을 연계한 레포츠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성진/강원도 세계산림엑스포TF팀장 : "그런 (산림 레포츠) 시설이 최고로 적정한 시설이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요. 이 시설을 어떻게 이제 도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검토해보고..."]

지역사회에서는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산림 관련 기관을 행사장으로 이전하거나 산림수련원 설치, 숲 체험시설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김용복/강원도의회 의원 : "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이것(행사장)을 제대로 활용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의 요구 사항입니다."]

강원도는 관리 주체나 활용 계획 등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정면구 nine@kbs.co.kr

江原日報

2023 11 21 ()

[동정] 심영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심영곤(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22일 오후 6시 경북 포항 라한호텔에서 열리는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1 22 ()

13



심영곤(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22일 오후 6

시경북포항라한호텔에서 열리는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한다.

2023 11 22 ()

02

江原日報

“강원특별법 산림 특례범위 국립공원 포함하라”

도시장·군수협 2차 정례회
협의회 건의문 道 전달 예정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강원특별법 특례에 포함된 산림이 용진흥지구 적용 범위를 국립공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정례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자연공원법 특례 적용 범위가 도립 및 군립공원으로 한정돼 있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서 적용 범위를 국립공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강원특별법에서는 도지사가 산림 이용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정 범위를 국립공원은 제외한 도립 및 군립공원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민선 8기 2차 연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가 21일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13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장·군수 협의회는 건의문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시·군 자치 조직권 확대 △동해시의 묵호항 제3·4부두 우선 개방 △태백시 스포츠재단 설립 △강원형 공동임대주택사업 확대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조정 △건강한 스포츠 참여 문화선도 △보전산지 내 현황도로 유지·관리 기준 △스마트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 추진 △남북9축 고속

도로 추진협의회 공동 건의 등 모두 10개 협의안을 상정해 채택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의 발전을 어렵게 했던 걸림돌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하나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18개 시·군이 공동 발전할 기회가 반드시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속초=권원근기자

江原日報

2023 11 22 ()

03

오늘부터 道·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돌입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으로 도 1년 전체 살림살이를 살핀다. 경기 침체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 여파로 민생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고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22일부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김진태 지사, 신경호 도교육감이 이날 오전 1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에 나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23일부

7조5천억·3조9천억 각각 편성
경기 침체 역대 최대 세수결손
도의회 민생 예산 유지 총력

터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도, 다음 달 11일부터 도교육청 본심사에 집중한다. 앞서 강원자치도는 올해보다 630억원(0.8%) 증가한 7조5,862억원, 도교육청은 1,720억원 줄어든 3조9,709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도가 고강도 건축재정 방점을 밝힌 가운데 도의회는 민생 예산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3조원에 달하지만 정부 시책 사업을 연계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 강원형 복지 정책 사업은 육아기본수당과 공공이불뻘래방, 다문화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사업 등 3개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도는 반도체, 바이오 등 강원 경제를 일으킬 미래전략사업에는 예산

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22일 재정효율화 특위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모빌리티 기업 디피코와 강원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현황도 점검한다.

도교육청의 전자철관 보급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

를 앞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급함을 요하지 않는 경우 어느 정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듣고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을 위한 사업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된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3 11 22 ()

04

江原日報

신 교육감 “전자칠판 사업 시끄럽게 돼 유감”

“색안경 끼고 봐, 억울한 입장”
특혜 의혹 논란에 공식 표명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사진)이 21일 전자칠판 보급사업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차담회에서 “(전자칠판 보급사업과 관련해) 두 차례 진행된 감사를 통해 모든 자료가 제출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내 전자칠판 보급 과정에 대해 루머가 많이 돌고 있고,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느낌”이라며 “학교마다 전자칠판 등을 선정



◇전자칠판 보급사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하는 위원회가 있어 교육감이 특정 업체를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사실 좀 억울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도내 학교들은 임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기기선택위원회’가 존재해 각종 기기 도입을 주관한다.

신 교육감은 올해 전자칠판 보급

당시 제품 조건에 ‘조달 우수제품 인증’이 추가된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신 교육감은 “일선 학교들이 30여 개의 전자칠판 업체를 놓고 고민하길래 그렇다면 조달우수제품으로 하라고 ‘권장’했을 뿐 강요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보급 대상이 유치원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선 “저학년일수록 선생님과 아이들이 전자칠판 활용도가 높고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에듀테크’가 시대적 흐름인데 강원지역이 디지털 교육에서 뒤쳐질 수 없다”면서 내년에도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강동희기자 yulnyo@

2023 11 22 ()

04

江原日報

장애인 주차구역 16대뿐 ... 휠체어 타고 정류장 이동도 어려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성공 운영 위한 과제

이동약자 전용 승강기·리프트 등 편의시설 조속히 확충해야
연 100억 수익 목표 경쟁력 확보 필요... 시공사 선정도 급선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작곡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돌입했지만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격한 찬반갈등을 겪은 사업인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주차장 16대뿐, 이동약자 편의시설 확충 시급=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탑승을 위해서는 오색공영터위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47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지만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2층과 3층 각 8대씩, 16대뿐이다. 오색케이블카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 문화향유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오색공영터위주차장에서 케이블카 하부정류장까지는 급경사로 걸어서 13분가량 걸리고 휠체어를 타고는 이동이 어렵다. 정류장 인근에 호텔 등이 운영하는 민간주차장이 있지만 공영터위주차장 이용료(10분당 200원, 일 최대 1만원)에 비해 비싸다. 이동약자 전용 승강기, 주차장, 화

장실, 휠체어리프트 등 편의시설은 공영사업 시행 허가 전제조건이었던 만큼 조속한 확충이 필요하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주차장 추가 확보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 수익 연 100억원~임장객 많을수록 지역 환원=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총 사업비는 1,172억원으로 도비 224억원, 양양군비 948억원씩 분담한다. 양양군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면 부담되는 액수다. 이에 양양군은 한해 100억원의 운영수익을 올려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50만~60만명이 오색케이블카를 이용해야 한다. 경남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이용객이 지난해 46만4,420명이었음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목표다. 특히 현재 전국에 56개 케이블카가 운영 중으로 치열한 케이블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독자적인 콘텐츠, 연계 관광 상품 등이 필요하다.

특히 오색케이블카는 총 매출의 5%를 매년 환경보전기금으로 적립

한다. 이 기금은 설악산국립공원의 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어 이용객이 많을수록 설악산에 재투자가 가능해진다.

■조속한 시공사 선정=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은 내년 2월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3월 착공한다는 로드맵을 세워두고 있다. 다만 시공사 선정을 두고 조달청과 양양군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양군은 풍부한 케이블카 시공 경험을 갖추고 능력이 입증된 업체를 선정해 패키지로 공사를 맡겨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조달청은 일반 토목공사에 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선정은 공사 단계의 첫 단추다. 환경영향평가 조건에 따라 산양의 번식기(4~6월) 및 짝짓기 시기(10~12월)에는 큰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공사에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2026년 운영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공사 선정이 필수다.

양양군 측은 “시공사 선정 방안에 조달청과 다소 이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꾸준히 협의 중으로 내년 2월까지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023 11 22 ()

01

강원도민일보

역대 최대 누적수출액 불구 강원 무역수지 적자

수입액 7개월동안 29.1% 감소
전선품목 월간 수출액 감소 영향

천연가스, 유연탄 등의 수입감소에 따라 강원지역 수입액 감소세가 7개월 연속 이어졌다. 지난 10월 수입액도 지난해와 비교,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무역수지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도내 수출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10월 수입액은 3억3430만 달러로 전년동월(6억9378만달러) 대비 51.8% 감소했다. 지난 4월(-23.5%)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다. 10월까지 누적 수입액은 45억1834만달러로 전년(63억7387만달러) 대비, 29.1%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올해

천연가스는 1억5859만7000달러로 전년 동년 대비 35.5% 줄었고, 유연탄(-26.2%), 계(-21.7%), 기타금속광물(-40.8%) 등 상위 10개 품목 중 7개가 감소했다.

수입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10월 무역수지는 1억1789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도내 수출액은 2억1641만달러로 전년동월(2억1854만달러) 대비 -1%, 소폭 감소했다. 10월까지 누적수출액의 경우 22억6453억달러로 전년(23억3801만달러) 대비 3.1%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도내 수출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선품목 등이 월간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시멘트는 전년 대비 768만달러(-31.7%), 합금철은 729만

달러(-42.4%) 정도 감소했다. 다만 강원지역 1위 수출품목인 의료용 전자기기는 올해(1~10월) 누적 4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10월 누적 수출액을 기록했다. 의약품 수출도 콩고,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백신수출과 중국 수출 증가에 따라 83.8%,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화장품 수출도 중국 수출확대로 인해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2023 11 22 ()

10

江原日報

춘천 교육발전특구 유치 도전장

내달 정부 공모 준비 박차... 국제학교 설립 등 세부안 고심

【춘천】춘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유치 도전에 나선다.

춘천시는 21일 2023년 교육도시 춘천 추진 성과를 발표하면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협력하는 체계다.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에 걸쳐 교육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시행할 수 있다.

시는 공모 신청에 앞서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한 특구 세부 운영안을 고심하고 있다. 특구 유형은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협력하는 I유형을 계획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가 교육특구 연구를 위해 춘천형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운영 현장을 확인하는 등 춘천지역 교육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교육도시 춘천 조성 원년의 해를 맞아 5대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심 15분 도서관 완성

을 목표로 북부공공도서관 신축, 4개 동 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이 이뤄지고 있고 교육 정책 거버넌스인 교육도시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또한 고교 통학급행버스(S버스) 12개 노선이 도입됐고 춘천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3곳이던 다함께돌봄센터는 5곳으로 확충된다.

홍문숙 시 경제진흥국장은 “올해 교육도시 주춧돌을 마련했다면 내년에는 미래인재 양성 인프라 확대, 글로벌 대학선정에 따른 지역-대학 협력체제를 본격 가동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1 22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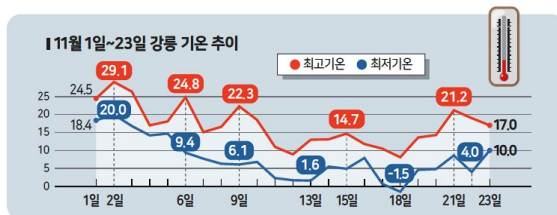
추웠다 풀렸다 오락가락 11월... 최저·최고기온차 31.7도

<춘천지역>

입동 전 가장 높은 최저기온 기록
보름 뒤 첫 눈... 작년보다 빨라
오늘 오후부터 영서 한때 비·눈

11월 들어 도내 전역이 초여름에서 한겨울까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11월이 채 끝나지 않았지만 춘천의 경우 최저·최고기온의 차이가 31.7도, 강릉은 30.6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춘천과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을 비교한 결과 가장 낮았던 아침 최



저기온은 춘천의 경우 13일 -6.2도였고 강릉의 경우 18일 -1.5도로 집계됐다. 가장 높았던 낮 최고기온은 두 지역 모두 지난 2일이었다. 춘천은 25.5도, 강릉은 29.1도를 보였다. 두 지역의 최저·최고기온을 비교했을 때 11월에만

춘천은 31.7도, 강릉 30.6도 기온 차이가 났다. 특히 지난 2일 겨울을 알리는 입동을 일주일 여 앞두고 도내 곳곳 최저기온이 역대 11월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일 오전 6시 기준 강릉 20도, 대관령 13.6도, 동해 16.8도, 속초 17.5

도, 인제 18.3도 등으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일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반면 보름 뒤인 17일에는 춘천과 강릉에서 첫 눈이 관측되는 등 도 전역에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강원기상청은 지난 17일 강원기상청사와 춘천기상대를 기준으로 첫 눈이 관측됐다고 밝혔는데 강릉의 경우 지난해보다 26일 빠르게 첫 눈이 나타났고 춘천은 작년보다 11일 빨랐다.

또한 불과 18일에는 -1.5도를 기록했던 강릉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21일에는 8.6도로 기록됐고 21일 낮 최고기온은 21.2도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압의 영향으로 우

리나라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번갈아 유입되기 때문이다. 강원기상청 관계자는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진 것은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찬 공기를 넣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자리해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기온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2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2~1도, 영동 4~9도, 낮 최고기온은 영서 11~15도, 영동 15~19도로 예보된 가운데 이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영서와 산지를 중심으로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 11 22 ()

/ 19

속초 북방항로, 국제도시 출발점

-10년만에 재개, 물류·관광 획기적 변화 기대

속초항을 모항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운행하는 북방항로가 지난 20일 다시 열렸습니다.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중앙아시아까지 물류가 이동하고, 속초가 유라시아철도의 종착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운항 재개는 속초가 글로벌 국제도시로 도약할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관광과 물류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환동해 교통과 교류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속 가능한 운항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속초항이 실질적인 국제 산업 기지 역할을 하도록 물동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시 운항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약재를 최소화하고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속초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간 외항 여객 화물 운송은 주 2회 운 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노선을 오갈 선박 오리엔탈펠 6호는 1만 6000t급이며, 전장 167m의 카페리로 승객은 700명, 화물 150TEU, 차량 350대 운송이 가능합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와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취향식에서는 도와 속초시, 해운사인 제이에스해운과 물류사인 서중물류가 북방항

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단 없는 운항을 약속했습니다.

속초 지역 숙원사업인 북방항로 재운항은 10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져 시민들의 감회가 남다릅니다. 항로는 지난 2000년 4월 동춘항운이 1만 2000t급 여객선을 투입해 운항을 시작하면서 개설됐지만 2010년 10월 경영악화로 멈춰섰고, 이어 스텔나대아라인이 2013년 3월 선박 운항을 재개했으나 적자 누적으로 2014년 6월 중단됐습니다. 이후 한창해운이 지난 2019년 1만 7329t급 카페리 한창강원호를 구입했다가 130여억원에 달하는 수리비 부담과 코로나 19 상황까지 겹쳐 2021년 취향조차 못하고 면허를 반납하는 등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북방항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치밀한 전략과 정책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가장 큰 숙제는 승객과 물동량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국제항인 동해항의 경우, 물류가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속초항도 장단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연계 교통망 확충과 홍보 활동, 관광 코스와 쇼핑 콘텐츠 개발 등 기반 조성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22 ()

/ 19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부응해야

-도·군비 1192억원 투입, 전국 40여곳 혈투 적자 우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이 주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 어제(11월20일) 양양에서 있었습니다. 양양군비 948억원과 도비 224억원을 합쳐 총 1192억원이 투입되는 오색케이블카 조성사업 실제 착공은 2024년 3월로 예정돼 있지만, 일찌감치 착공식을 하게 된 것은 두 자치단체에서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 3.3km 구간을 운행하게 될 오색케이블카는 순조로우면 2026년 상반기에는 운영될 예정입니다.

1982년 도가 최초 입안한 오색케이블카는 보존가치가 높은 국립공원구역이어서 그동안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반발이 커졌고 양양군민 전체의 염원으로 확산 인식돼 왔습니다. 명산인 설악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내세울 만한 관광시설이 적은 양양에서는 케이블카 관광으로 획기적으로 방문객이 늘어 지역상경기에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도와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1369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수치를 내놓았지만, 120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경제성을 낼지의

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은 오색케이블카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금액이 잘못된 기준 적용에 의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국민관광지'로 불렸던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설악산 주변 음식점과 숙박지는 문을 닫고 방치되는 등 가라앉았습니다.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케이블카 관광에 뛰어들면서 17곳이 신개장하는 등 현재 40여 곳이 혈투를 벌이면서 90% 이상 적자 상태에 처한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케이블카 관광 난립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방문객수 급감으로 흑자를 내는 곳은 2개 소 정도이고 오히려 거대한 시설 유지 보수비용 투입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뉴스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색에 이어 '영남알프스'를 내세운 울주군 등에서 새로운 산악케이블카등장이 예고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총사업비 전액 및 운영비까지 지방비로 해결해야 하는 도와 양양군은 내년 봄 착공 이전에 경제성과 사업성을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주민 일각에서 케이블카 반대론이 나오는 만큼 지역경제 유발효과 분석이 정확하고 치밀해야 예산 낭비와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는 뒷말을 듣지 않습니다.

江原日報

2023 11 22 ()

/ 19

외국인 인력 채용, 산업현장 특성 반영돼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를 늘렸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도내 현장의 경우 근로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그중 절반은 불법 고용자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물론 불법 고용 건설사는 과태료 처분과 1~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금지 등 처벌을 받는다. 또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은 내국인 노동자 생존 위협과 외국인 노동자 노동력 착취, 안전사고 위험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은 외국인 없이는 공기를 맞추기 어렵다며 처벌과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외국인 인력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갈수록 건설사 인력난이 심화되는 것을 고려해 외국 인력 채용 기준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건설현장의 불법 고용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경쟁을 꼽는다. 하청업체가 수익을 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마구잡이로 채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을 국내 근로자들이 외면하는

탓도 크다. 그러다 보니 다시 불법 외국인을 써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불법 취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위주로 짜여 있다. 수시로 일감이 생겼다 사라지는 건설업과는 맞지 않는다.

외국인 불법 채용이 건설현장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외국 인력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국인 고용 확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이 망해 버리면 고용이고 뭐고 오히려 사업자만도 산시키고 마는 셈이 된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상황에서는 외국인 노동시장의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 외국 인력 수요를 국내 인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전문 외국 인력 유입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이상 앞으로도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불법 고용이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이민의 시대'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 역시 업그레이드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江原日報

2023 11 22 ()

/ 19

50년 규제 지역경제 침체, '소양담 법' 정비해야

소양강댐 운영 관련법은 정비돼야 한다. 다목적댐 관리권을 지방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수량 기준 전국 1위인 소양강댐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비해 받는 출연금은 적고 각종 환경규제로 지역경제는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3년 완공된 소양강댐으로 인해 50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10조원을 넘지만 피해 보상은 1,0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자치도와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피해는 최소 6조 8,300억원, 최대 10조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수몰지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액 연간 최대 1,133억원, 기상변화 피해 연간 최대 897억원, 소양강댐 휴탕물 방류로 인한 춘천시의 수질, 정수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됐다. 반면 소양강댐 건설 후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50년간 전기 생산, 용수 공급으로 올린 수입금은 9조 4,33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소양강댐 주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내용(본보 지난 9일자 2면 보도)이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소양강댐의 진가는 준공 후 십수 년이 지난 1984년과 1990년 대홍수 때 발휘됐다. 5억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가진 소양강댐이 상류에서 물을 최대한 가둬 주면서 한강 인도교 수위를 1.23~2m 가량 떨어뜨린 덕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두 차례 대홍수 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제 소양강댐의 공과를 명확히 평가해야 할 때다. 주민 피해 보상 등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양강댐이 가진 새로운 미래 지향적 가치를 찾아 지역과 국가 발전의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

치수에 성공한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다. 상습 침수 지역이던 강남권은 농지에서 도시 주거 지역으로 개발됐다. 이수(利水)에도 성공했다.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295ℓ의 물을 쓰는데, 소양강댐이 하루 수도권에 보내는 식수는 1,356만명이 쓸 수 있는 400만톤 규모다. 수원·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며 기업이 성장한 것도 소양강댐이 보내는 공업용수가 있기에 가능했다. 문제는 지역 주민의 피해가 커지고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데 있다.

소양강댐 건설로 춘천을 비롯한 양구, 인제 등 3개 지역 6개 면 37개 리가 수몰됐고, 국가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2만 3,000여 명이 수몰민이 돼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반강제로 이주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소양강댐 주변지역 230㎢의 면적이 축사조차 지을 수 없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발전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왔다. 그리고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안개 및 서리 일수에 따른 호흡기 질환 등도 증가했다. 농작물 피해 및 농업소득 감소,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상·재산상의 손실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소양강댐의 공과를 명확히 평가해야 할 때다. 주민 피해 보상 등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양강댐이 가진 새로운 미래 지향적 가치를 찾아 지역과 국가 발전의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

50년간 피해 10조에 보상 1,000억원대 불과
피해지 공대위, '소양담 주권' 총선 공약 촉구
공과 명확히 가려 지역 발전 기제로 활용할 때